

AUTHOR 한철하 (Chul Ha Han)

TITLE 완전론자와 분리주의자에 대한 칼빈의 논박
(John Calvin: Against the Perfectionists and
the Separationists)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30 no.2 (June, 1963):40-46

못하도록 크게 부르짖음을 意味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같은 思索의 方法은 진리를 全心全力하여 默想하는데 도움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如何인 眞理의 默想이란 것은 貴하다. 사람이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人格이 決定되는 것이 事實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자 하는 자는 내가 恒常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反省하면 스스로 判斷이 될 줄 안다. 생각의 약간의 차이로 兄弟사이에도 그 길이 크게 달라지는 그 悲劇을 우리는 얼마나 느껴왔던고. 教育의 큰 任務는 결국 옳은 생각을 넣어 주는 것 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默想한다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간다. 거룩한 생각은 거룩한 人格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祈禱를 할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默想하며 하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한 祈禱는 우리로 점점 眞理의 깊은 곳을 찾아들게 하는 때문인 줄 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가 받는 福은 어떤 것인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했다. 여기에 “심은”다는 뜻은 씨를 심어 되는 것을 意味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 땅에 옮겨 심는 移植을 意味한다(10). 이 말은 하나님의 恩寵을 暗示하는 뜻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비록 돌 껍질 같이 매마른 땅에 자랐다 할지라도 시냇가의 기름진 밭으로 옮겨 심어준다는 말이 아닌가 한다. 罪惡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律法을 즐거워 하며 주야로 그것을 默想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恩惠의 生水가 흐르는 그곳으로 옮겨 주신다는 뜻인 줄 안다. 시절을 좇아 잎이 옥어지고, 香氣를 날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 卽 모든 것이 亨通할 수 있는 그 福스러운 곳으로——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받는 福의 本質이다. (끝)

參 考 文 獻 (本說教를 위한)

- Alexander, J. A., The Psalms translated and explained, Vol. I, New York, 1861
- Brown, Driver and Briggs, Hebrew Lexicon, Oxford, 1937
- Delitzsch, F., Commentary on the Psalms, Vol. I. Grand Rapids, 1955.
- Girdlestone, R. B., Synonyms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1953
- Orr, James,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Vol. II/Grand Radids, 1937
- Davidson, Stubbs and Kevan, The New Bible Commentary, (I. V. F.) London, 1954

(註 10) “심은”의 原語, Shathul은 Shathal 이란 單語의 受動態分詞形으로써 自生이 아니라 移植을 (to be transplanted) 意味한다(B. D. B. Lexicon, P. 1960).

完全論者와 分離主義者에 對한 칼빈의 論駁

—칼빈 基督教綱要 IV, i, 12~16—

韓 哲 河 譯

말씀의 순수한 사역과 성예전 거행의 순수한 儀式이 참된 教會의 充分한 표로 保證으로 認定한다면 이 양자를 볼수있는 社會를 우리는 비록 다른 점들에 있어서 여러가지 결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두가지를 保有하고 있는 한 결코 拒絕하여서는 안된다. 더욱이 어떤 결함은 敎理의 說敎나 聖禮典의 舉行에 까지 스며들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因하여 우리는 教會의 公通으로 부터 떠나서는 안된다. 대개 참된 敎理의 모든 條項을 다 일률적으로 말할수는 없다. 어떤 條項은 더 필수적이어서 마치 宗教의 公式과 같이 固定되어야 하며, 疑心할수 없는 原理로서 普遍的으로 容納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든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든가, 우리의 敎授은 하나님의 慈悲에 依存한다든가 等이다. 그러나 어떤 條項들은 教會에서 많이 論爭되나 信仰의 統一性을 破壞하기 까지 이르지 않는 것들이었다. 가령 어떤 教會에서 靈魂은 그 몸을 떠나서 즉시로 하늘로 옮겨진다고 보고, 또 다른 教會에서는 肉身을 떠난 靈魂들의 居處를 定하지 않으나 결국 主님 앞에 산다고 確實히 믿을 때에, 萬一 論爭하기를 이 좋아하며, 완고하게 되는 일만 없다면, 그와같은 意見差異로 말미암아 分까지 이르켜야 할것인가? 使徒로 말미암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萬一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별립보 3: 15). 말씀은 非本質的인 점에 關한 意見差異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分裂의 原裂

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充分히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물론 우리가 모든 점에 있어서 一致하여야 한다는 것은 重要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程度 無知의 구름속에 쌓여 있지 않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고로, 우리는 宗教의 本質을 깨트리고 救援을 잃을 危險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와같은 사람들의 無知에서 오는 誤謬를 용서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教會를 전혀 認定하지 않는 結果에 이를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어떤 誤謬를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변명하려는 것으로 혹은 厭過나 阿諛으로 그것을 축전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내가 主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소한 意見差異로 因하여 教會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教會가 우리의 救援의 根本의인 敎理를 건전하게 상함없이 保有하고, 우리 주께서 세우신 聖禮典의 舉行을 維持하는한 그 教會를 버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容納할수 없는 點을 고치려 努力하는 것도 우리의 義務를 行하는 것이다. 이 점 바울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命하고 있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着는 잠잠할지니라」(고린도 전 14:30). 이로 보건대 教會의 各사람은 自己의 恩寵의 分量을 따라 각각 一般의 전덕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容納할수 없는 일을 고치는 일도 和平과 秩序 가운데 행하여야 할것이다. 다시말하여 우리는 教會의 교통을 버려도 안되고, 教會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서 그 平和와 規模있는 情정을 혼란케 하여도 안된다.

그러나 生活의 不完全性을 容納하는 問題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寛大하여야 한다. 대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오류를 犯하기 쉬우니, 사탄은 이점에 있어서 非常한 계교로 우리를 속이려 한다. 대개 完全하고 神聖한 生活에 관하여 거짓된 觀念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서 저들은 마치 이미 肉身을 벗은 靈들이 되어 버린것 처럼 人間的 연약함의 어떤 흔적이라도 發見되면 그런 사람들의 社會를 멸시한다. 옛날에는 카타리들이 그러하였고, 또 같은 어리석음에 빠졌던 도나티스트들이 그러하였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拜復禮派들이 그변한데, 이들은 敬虔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 보다 앞서는 것으로 자처한다. 또 어떤이들은 그와같은 不합理한 苛만으로 困함보다 義에 對한

지각없는 열정으로 困하여 誤謬를 犯하는 者들이 있다. 대개 저들은 福音의 說敎를 들은자들 가운데 그 가르침이 生活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結果가 따르지 않음을 볼때에 즉시로 宜當하기를 教會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같은 거리낌은 眞實로 正當한 根據를 가진다고 할수있고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不幸한 時代에는 그럴 理由가 더 많은 것이다. 또한 主께서 장차 반드시 開하실, 이미 主께서 심한 制裁로 懲戒하기 始作하신 그와같은 가증된 罪惡을 우리가 犯하고 있다는 것도 辨明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罪惡된 自暴自棄의 放縱으로 困하여 연약한 良心에 상처를 受진대 우리에게 阻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問題 삼고 있는 사람들의 誤謬는 저들이 거리낌의 한도를 어떻게 定할지를 알지 못함에 기인한다. 대개 우리 主께서 慈悲를 行할것을 要求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를 전적으로 等한히 하고 지나친 嚴格主義에 빠졌다. 完全히 정결하고 온전한 生活이 없는 곳에는 教會도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저들은 犯罪를 미워하는 나머지 참된 教會에서 떠난다. 그리고 저들은 惡人들의 파당으로 부터 떠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教會는 거룩한 것으로 저들은 굳게 믿는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의 教會는 善人과 惡人이 섞여 있다는 것도 또한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비유를 들으라. 教會를 한 그물에 比較하셨으니 즉 모든 種類의 물고기를 그물 속에 놓아 넣으되 해변에 그것을 퍼 놓기까지 분류를 하지 않음과 같다. (마태 13:47) 저들에게 또 다른 한 비유를 들리라. 즉 教會를 한 밭으로 比較하셨으니 이 밭에 좋은 씨를 부던 後에 원수의 계교로 가라지를 덧부렸으나 추수때에 곡간에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버려둘과 같다. (마태 13:24) 마즈막으로 저들에게 또 다른 한 비유를 들리라. 卽 教會를 타작마당에 比하셨으니, 타작마당에 알곡은 겨 속의 불에 있으니 마침내 키로 까불고 바람에 날려 알곡을 곡간에 저장함과 같다(마태 3:12). 教會는 이와같은 惡한 狀態에 수고하여야 하며 審判의 날까지 惡人들이 섞여 있음으로 困하여 皮로움을 當하여야 한다는 것을 萬一 主께서 宜當하신다면, 참이 조금도 없는 教會를 찾는 일은 無用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부르짖기를 犯罪의 역병이 그와같이 널리 蔓延되는 일을 容納할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事實이 그렇지 않다면 幸福스러운 일이란 것을 나도 認定한다. 그러나 使徒의 判斷을 보임으로서 저들에게 答하려고 한다. 고린도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수가 탈선 하였다. 그 疾病은 거의 온 教會에 蔓延하였다. 또한 罪惡의 種類도 하나뿐은 아니었고 여럿이었다. 또한 그 罪惡도 사소한 過誤가 아니었고 가공할만한 犯罪들이었다. 또한 道德的인 腐敗까지 있었다. 이와같은 경우에 하늘의 聖靈의 機關이요 그의 증거에 教會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 거룩한 使徒의 行爲는 어떠 하였는가? 그는 저들로 부터 分裂할것을 求하였는가? 저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追放 하였는가? 苛酷한 定罪의 벼락으로 저들을 쳤는가? 그는 이와같은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그리스도의 教會요 聖徒들의 社會로 認定하고 또 그와같이 불고 있다. 萬一 고린도인들 사이에 한 教會가 남아있었다면, 거기에는 다툼과 파당과 경쟁이 분요 하였다. 탐욕과 논쟁과 소송이 전개 되었고 이방인들도 저주하는 犯罪가 公公然히 認定되었고. 저들의 아버지로서 경외하여야 하였을 바울의 이름이 불손하게 모욕되었고. 어떤 이는 復活의 敎理를 조소하여 福音全體를 무효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恩寵은 慈悲를 증진시키기 보다는 野心을 增大케 하였고, 여러가지 일이 無節制하게 規模없이 行하여졌던 이 고린도인들 사이에, 다만 말씀의 사역과 聖禮典의 舉行이 拒絕되어 있지 않음으로 因하여 아직도 한 教會가 남아 있었다면 이와같은 罪惡들의 十分之一도 찾을수 없는 사람들에 對하여 누가 감히 教會의 이름을 拒絕할수 있으랴? 오늘날 教會들에 對하여 그와같은 난포와 엄격을 보이고 있는 저들에 對하여 물을 일은, 福音을 거의 버리다 싶이한 갈라디아인들에 對하여 저들은 어떻게 行하였을 것인가? 같은 使徒는 저들 사이에서도 教會를 볼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고린도 전 1: 11; 3: 3; 5: 1; 6: 7; 9: 1; 14: 29, 40; 15: 12; 갈라디아 1: 6; 3: 1; 4; 11)

저들은 다음과 같이 反對를 말한다. 卽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흉악한 犯罪

를 저들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음을 심히 非難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非難한 일을 利用하여 소문이 나쁜 사람과는 함께 먹는것도 合當치 않다는 一般的 結論을 내리운다(고전 5: 2, 11, 12). 저들은 主張하기를 萬一 그와같은 사람과 함께 먹는일조차 合當치 않았다면 저들과 聯合하여 주의 떡을 떼는 일이 어떻게 合當하겠는가? 하고 말한다. 不道德한 生活을 하는 者들이 하나님의 子女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크게 불미한 일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저들에 依하여 胃瀆된다면 그 치욕은 더욱 큰 것이라한 것을 나도 告白한다. 그리고 眞實로 教會가 萬一 잘 治理되어 있다면 그와같은 種類의 사람들을 容納하지 않을것이며 또한 合當한 者 合當치 않은 者들을 無分別하게 거룩한 상에 참여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들은 저들을 언제나 잘 監視하지 못하며 혹은 지나치게 寬大하며 혹은 저들이 願하는대로 嚴格性을 나타내지 못하여 그 惡함이 公公然하게 드러난 자들일 지라도 聖徒들의 社會에서 반듯이 除去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일이 過誤이란 것을 나는 認定한다. 그리고 그와같은 일을 辨明할 마음도 없다. 바울도 고린도 인들에 對하여 그와같은 일을 嚴히 꾸짖고 있다. 그러나 教會가 그 義務를 行하는데 있어서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로 因하여 各個人이 分立하여야 한다는 正當한 理由가 되지 못한다. 敬虔한 사람으로서는 惡한 者와의 모든 私的 親密性을 끊고 그들과의 어떤 自發的인 關係를 맺지 않도록 하는 일이 그 義務이라는 것을 나도 認定한다. 그러나 惡한 者들과의 親密한 交際를 避하는 일과 저들에 對한 憎惡로 因하여 教會의 교통을 排斥하는 일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저들과 함께 주의 잔을 나누는 것은 胃瀆的이라고 생각하는 者들은 이 점에 있어서 바울보다 지나치게 嚴格한 것이다. 대개 그가 우리를 권하여 주의 잔에 精潔함과 거룩함으로 참여하라 할때에 그는 각각 다른 사람을 살피고 혹은 온 教會를 살핀 後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한것이 아니요, 各己 自己를 살피라고 한것이다. 萬一 合當치 않은 者와 함께 受餐하는 것이 不當하였다면 바울은 分明히 우리 周圍에 있는 者들을 살피고 會衆 가운데 순결치 않은 者가 있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하게 되지 않을가 살

될것을 命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만 각각 自己를 살피라고 할뿐임으로 이는 尙當치 않은 勸가 우리 사이에 있다 하여도 우리에게 아무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그가 後에 追加한 말에 들어나 있다. 「누구든지 主의 떡이나 잔을 尙當치 않게 먹고 마시는 者는 自己의 罪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21, 29) 그는 여기서 다른사람의 罪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自己의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充分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 대개 누가 敎會에 容納되어야 하며 누가 敎會로 부터 逐出되어야 하는가를 判斷하는 일이 각 사람에게 다 마쳐진 일이 아니다. 이 權勢는 全敎會에 속하며 合法的 節次를 밟아서 行事하여야 한다. 이 問題에 關하여는 後에 全體적으로 取扱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他人의 尙當치 않음으로 因하여 各個人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正當하지 않다. 그런자들이 오는 것을 막는 일이 그의 權限에 屬하지도 않고 그의 義務에도 屬하지 않을때에 그 사람과 함께 悤음으로 因하여 그가 부정하게 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誘惑은 때로는 義에 對한 無思慮한 熱情으로 起因하는 일도 있으나 一般적으로 지나친 嚴格性을 喪된 거룩함으로 誤認하는데 起因하며, 또는 거룩하여 지고져 하는 悤된 關心에 起因하기 보다는 자고와 교만에 더욱 起因하며 사람들이 흔히 품는 自己의 卓越한 거룩함에 對한 저것된 소견에 起因한다. 그러므로 敎會로 부터의 分裂을 가장 熱心히 피하며 마치 革命의 기치를 든것처럼 行하는 者들은 一般적으로 저들 自己의 卓越性을 나타내 보이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 對한 蔑視에 그 動機가 있는것에 不遇하다.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正確하고 또 正當하다. 「敎會의 권징의 敬虔한 法則과 方法은 平和의 줄로 매는 聖靈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그 本뜻이 있어, 이것을 使徒는 서로 忍耐로서 保存할 것을 命하였고 또 이것이 保存되자 못할진대 권징 그 自己가 無用하게 될뿐만 아니라 오히려 有害한 것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벌서 고치는 일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저 惡한 者들은 다른 사람들의 罪惡에 對한 憎惡에서가 아니고, 오히려 論爭을 즐겨하는 고로 分裂을 피하고 單純하고 敎育없는 大衆을 誘惑하여 저들 自己의 特性을 誇張하여 誘惑하

든가 或은 적어도 分裂을 惹起시킨다. 이와같은 者들은 自慢으로 높아졌고 頑固함으로 亂暴하여쳐서 狡猾하게 까다로운 異說을 流布시키며, 사면 伸동하여 騷亂케 하며, 한편 저들이 眞理를 缺如하고 있음을 가리우기 爲하여 嚴嚴한 嚴格性의 탈을 쓰고 自身을 감춘다. 兄弟들의 過誤를 是正함에 있어서 극히 溫和하게 하여, 진지한 사랑을 깨트리는 일이나 平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聖經에 命令된 것을, 저들은 胃積의인 不和를 조장하라는 뜻으로 曲解하여 敎會로 부터의 分裂의 계기를 삼는다. 이 敬虔하고 平和로운 자들에게는 어거스틴은 命하기를 是正하여야 할 일은 저들의 힘이 미치는한 慈悲로운 가운데 행하여야 할 것이며, 저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改革하시거나 이를 교정하시거나 혹은 추수때에 가라지는 뽑아내고 悤정이는 자블러 내시기까지 사랑가운데 슬퍼하며 기다릴것을 命하고 있다. 모든 敬虔한 者들은 스스로 조심하여 上述한 忠告들을 銘心하여 스스로 勇敢하고 熱心있는 義의 파수군된 것으로 自處하여 唯一의 義의 나라인 하늘의 王國에서 버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개 하나님의 敎會의 교통이 이 外的 社會 속에서 維持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으로 惡人들을 避하여 이 社會의 장포를 깨트리는 者들은 聖徒들의 班列에서도 떨어질 심히 危險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먼저 생각하여야 할것은 큰 무리 속에는 저들이 미처 發見치 못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悤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者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저들이 생각하여야 할것은 道德的인 과산상태에 있는것 같이 보이는줄 가운데서도 비록 저들이 罪惡에 탐닉하여 있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마음에 사로 잡히며 더 큰 完全性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자리에 이른다는 것이다. 셋째로 저들이 生覺할 것은 사람에게 對하여 단 한번의 行爲로서 判斷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장 거룩한 사람일 지라도 때로는 가장 가탄할만한 타락에 이른다. 네째로 저들이 알아야 할것은 말씀의 사력과 聖禮典의 參與는 敎會의 統一性에 있어서 決定的인 要素가 됨으로 몇몇 敬虔치 않은 者들의 犯

(以下58p에)

못하도록 크게 부르짖음을 意味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같은 思索의 方法은 全心全力하여 默想하는데 도움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如何한 眞理의 默想이란 것은 貴하다. 사람이란 마음의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人格이 決定되는 것이 事實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하는 자는 내가 恒常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反省하면 스스로 判斷이 될 줄 안다. 생각의 약간의 차이로 兄弟사이에도 그 길이 크게 달라지는 그 悲劇을 우리는 얼마나 느껴왔던고. 教育의 큰 任務는 결국 옳은 생각을 넣어 주는 것 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默想한다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간다. 거룩한 생각은 거룩한 人格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祈禱를 할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默想하며 하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한 祈禱는 우리로 점점 眞理의 깊은 곳을 찾아들게 하는 때문인 줄 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가 받는 福은 어떤 것인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했다. 여기에 “심은”다는 뜻은 씨를 심어 되는 것을 意味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 땅에 옮겨 심는 移植을 意味한다(10). 이 말은 하나님의 恩寵을 暗示하는 뜻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비록 돌 꺾밭 같이 배다른 땅에 자랐다 할찌라도 시냇가의 기름진 밭으로 옮겨 심어준다는 말이 아닌가 한다. 罪惡을 떨리하며 하나님의 律法을 즐거워 하며 주야로 그것을 默想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恩惠의 生水가 흐르는 그곳으로 옮겨 주신다는 뜻인 줄 안다. 시냇을 좇아 잎이 옥어지고, 香氣를 날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 卽 모든 것이 亨通할 수 있는 그 福스러운 곳으로——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받는 福의 本質이다. (끝)

參 考 文 獻 (本說教를 위한)

- Alexander, J. A., The Psalms translated and explained, Vol. I, New York, 1861
 Brown, Driver and Briggs, Hebrew Lexicon, Oxford, 1957
 Delitzsch, F., Commentary on the Psalms, Vol. I. Grand Rapids, 1955.
 Girdlestone, R. B., Synonyms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1953
 Orr, James,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Vol. II Grand Rapids, 1957
 Davidson, Stibbs and Kevan, The New Bible Commentary, (I. V. F.) London, 1954
 (註 10) “심은”의 原語, Shathul은 Shathal 이란 單語의 受動態分詞形으로써 自生의 아니라 移植을 (to be transplanted) 意味한다(B. D. B. Lexicon, P. 1960)

完全論者와 分離主義者에 對한 칼빈의 論駁

—칼빈 基督教綱要 IV, i, 12~16—

韓 哲 河 譯

말씀의 순수한 사역과 성예전 거행의 순수한 儀式이 참된 教會의 充分한 要素 保證으로 認定한다면 이 양자를 볼수있는 社會를 우리는 비록 다른 점들에 있어서 여러가지 결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두가지를 保有하고 있는 한 결코 拒絕하여서는 안된다. 더욱이 어떤 결함은 教理의 說教나 聖禮典의 舉行에 까지 스며들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因하여 우리는 教會의 公同으로부터 떠나서는 안된다. 대개 참된 教理의 모든 條項을 다 일률적으로 말할수는 없다. 어떤 條項은 더 필수적이어서 마치 宗教의 公式과 같이 固定되어야 하며, 疑心할수 없는 原理로서 普遍的으로 容納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한 분 하나님이 제신대든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든가, 우리의 救援은 하나님의 慈悲에 依存한다든가 等이다. 그러나 어떤 條項들은 教會에서 많이 論爭되나 信仰의 統一性을 破壞하기 까지 이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가령 어떤 教會에서 靈魂은 그 몸을 떠나서 즉시로 하늘로 옮기어 진다고 보고, 또 다른 教會에서는 肉身을 떠난 靈魂들의 居處를 定하려 하지 않으나 결국 主님 앞에 산다고 確實히 믿을 때에, 萬一 論爭하기를 이 좋아하며, 완고하게 되는 일만 없다면, 그와같은 意見差異로 말미암아 分까지 이르켜야 할 것인가? 使徒로 말미암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萬一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베립보 3: 15). 말씀은 非本質의인 점에 關한 意見差異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分裂의 原動力

因이 될수 없다는 것을 充分히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가 모든 점에 있어서 一致하여야 한다는 것은 重要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程度 無知의 구름속에 쌓여 있지 않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고로, 우리는 宗教의 本質을 깨트리고 敎授을 窮을 危險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와같은 사람들의 無知에서 오는 誤謬를 용서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敎會를 전혀 認定하지 않는 結果에 이를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어떤 誤謬를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변명하려는 것으로 혹은 默過나 阿諛으로 그것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내가 主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소한 意見差異로 因하여 敎會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敎會가 우리의 敎授의 根本的인 敎理를 건전하게 尙存없이 保有하고, 우리 주께서 세우신 聖禮典의 舉行을 維持하는한 그 敎會를 버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容納할수 없는 點을 고치려 努力하는 것도 우리의 義務를 行하는 것이다. 이 점 바울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命하고 있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着는 잠잠할지니라」(고린도 전 14:30). 이로 보전대 敎會의 각사람은 自己의 恩寵의 分量을 따라 각각 一般의 功徳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容納할수 없는 일을 고치는 일도 和平과 秩序 가운데 행하여야 할것이다. 다시말하여 우리는 敎會의 苦痛을 버려도 안되고, 敎會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서 그 平和와 規模있는 情狀을 혼란케 하여도 안된다.

그러나 生活의 不完全性을 容納하는 問題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관대하여야 한다. 대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오류를 범하기 쉬우니, 사탄은 이점에 있어서 非常한 계교로 우리를 속이려 한다. 대개 完全하고 神聖한 生活에 관하여 거짓된 觀念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서 저들은 마치 이미 肉身을 벗은 靈들이 되어 바뀐것 처럼 人間的 연약함의 어떤 흔적이라도 發見되면 그런 사람들의 社會를 멸시한다. 옛날에는 카탈리들이 그러하였고, 또 같은 어리석음에 빠졌던 도나티스트들이 그러하였다. 오늘 날에 있어서는 惡徒體派들이 그러한데, 이들은 敬虔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 보다 앞서는 것으로 자처한다. 또 어떤이들은 그와같은 不합理한 苛求로 因함보다 義에 對한

지각없는 兇惡으로 因하여 誤謬를 犯하는 者들이 있다. 대개 저들은 福音의 說敎를 들은자들 가운데 그 가르침이 生活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結果가 나타나지 않음을 볼때에 즉시로 宜言하기를 敎會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같은 거리낌은 眞實로 正當한 根據를 가진다고 할수있고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不幸한 時代에는 그런 理由가 더 많은 것이다. 또한 主께서 장차 반드시 罰하실, 이미 主께서 심한 懲罰으로 징계하기 始作하신 그와같은 가증된 罪惡을 우리가 犯하고 있다는 것도 辨明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罪惡된 自暴自棄의 放從으로 因하여 연약한 良心에 상처를 들진대 우리에게 慰靛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問題 삼고 있는 사람들의 誤謬는 저들이 거리낌의 한도를 어떻게 定할지를 알지 못함에 기인한다. 대개 우리 主께서 慈悲를 行할것을 要求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를 전적으로 등한히 하고 지나친 嚴格主義에 빠졌다. 完全히 정결하고 온전한 生活이 없는 끝에는 敎會도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저들은 犯罪를 미워하는 나머지 殘된 敎會에서 떠난다. 그리고 저들은 惡人들의 汚穢으로 부터 떠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敎會는 거룩한 것으로 저들은 굳게 믿는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의 敎會는 善人과 惡人이 섞여 있다는 것도 또한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비유를 들으라. 敎會를 한 그물이 比較하셨으니 즉 모든 種類의 물고기를 그물 속에 놓아 넣으되 해변에 그것을 퍼 놓기까지 분류를 하지 않음과 같다. (마태 13:47) 저들에게 또 다른 한 비유를 들리라. 즉 敎會를 한 밭으로 比較하셨으니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後에 원수의 계교로 가라지를 덧뿌렸으나 추수때에 곡간에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버려둠과 같다. (마태 13:24) 마르막으로 저들에게 또 다른 한 비유를 들리라. 卽 敎會를 타작마당에 比하셨으니, 타작마당에 알곡은 겨 속의 불에 있으니 마침내 키로 까붙고 바람에 날려 알곡을 곡간에 저장함과 같다(마태 3:12). 敎會는 이와같은 惡한 狀態에 수고하여야 하며 審判의 날까지 惡人들이 섞여 있음으로 因하여 괴로움을 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萬一 主께서 宜言하신다면, 참이 조금도 없는 敎會를 찾는 일은 無用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부르짖기를 犯罪의 역병이 그와같이 널리 蔓延되는 일을 容納할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事實이 그렇지 않다면 幸福스러운 일이란 것을 나도 認定한다. 그러나 使徒의 判斷을 보임으로서 저들에게 答하려고 한다. 고린도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수가 탈선 하였다. 그 疾病은 거의 온 教會에 蔓延하였다. 또한 罪惡의 種類도 하나뿐은 아니었고 여럿이었다. 또한 그 罪惡도 사소한 過誤가 아니었고 가공할만한 犯罪들이었다. 또한 道德의인 腐敗까지 있었다. 이와같은 경우에 하늘의 聖靈의 機關이요 그의 증거에 教會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 거룩한 使徒의 行爲는 어떠 하였는가? 그는 저들로 부터 分裂할것을 求하였는가? 저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追放 하였는가? 苛酷한 定罪의 叱咤로 저들을 쳤는가? 그는 이와같은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그리스도의 教會요 聖徒들의 社會로 認定하고 또 그와같이 불우고 있다. 萬一 고린도인들 사이에 한 教會가 남아있었다면, 거기에는 다툼과 파당과 경쟁이 분요 하였다. 탐욕과 논쟁과 소송이 전개 되었고 이방인들도 거주하는 犯罪가 公公然히 認定되었고 저들의 아버지로서 경외하여야 하였을 바울의 이름이 불손하게 모욕되었고, 어떤이는 復活의 敎理를 조소하여 福音全體를 무효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恩寵은 慈悲를 증진시키기 보다는 野心을 增大케 하였고, 여러가지 일이 無節制하게 規模없이 行하여졌던 이 고린도인들 사이에, 다만 말씀의 사역과 聖禮典의 舉行이 拒絕되어 있지 않음으로 因하여 아직도 한 教會가 남아 있었다면 이와같은 罪惡들의 十分之一도 찾을수 없는 사람들에 對하여 누가 감히 教會의 이름을 拒絕할수 있으랴? 오늘날 教會들에 對하여 그와같은 난포와 엄격을 보이고 있는 저들에 對하여 물을 일은, 福音을 거의 버리다 싶이한 갈라디아인들에 對하여 저들은 어떻게 行하였을 것인가? 같은 使徒는 저들 사이에서도 教會를 볼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고린도 전 1: 11; 3: 3; 5: 1; 6: 7; 9: 1; 14: 29, 40; 15: 12; 갈라디아 1: 6; 3: 1; 4: 11)

저들은 다음과 같이 反對를 말한다. 卽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흉악한 犯罪

를 저들 中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음을 심히 非難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非難한 일을 利用하여 소문이 나쁜 사람과는 함께 먹는것도 適當치 않다는 一般的 結論을 내리운다(고전 5: 2, 11, 12). 저들은 主張하기를 萬一 그와같은 사람과 함께 먹는일 조차 適當치 않다면 저들과 聯合하여 주의 떡을 떼는 일이 어떻게 適當하겠는가? 하고 말한다. 不道德한 生活을 하는 者들이 하나님의 子女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크게 불미한 일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저들에 依하여 胃爛된다면 그 지옥은 더욱 큰 것이란 것을 나도 告白한다. 그리고 眞實로 教會가 萬一 잘 治理되어 있다면 그와같은 種類의 사람들을 容納하지 않을것이며 또한 適當한者 適當치 않은 者들을 無分別하게 거룩한 상에 참여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들은 저들을 언제나 잘 監視하지 못하여 혹은 지나치게 寬大하며 혹은 저들이 願하는대로 嚴格性을 나타내지 못하여 그 惡함이 公公然하게 드러난 자들일 지라도 聖徒들의 社會에서 받듯이 除去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일이 濫誤이란 것을 나는 認定한다. 그리고 그와같은 일을 辯明할 마음도 없다. 바울도 고린도 인들에 對하여 그와같은 일을 嚴히 꾸짖고 있다. 그러나 教會가 그 義務를 行하는데 있어서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로 因하여 各個人이 分立하여야 한다는 正當한 理由가 되지 못한다. 敬虔한 사람으로서의 惡한 者와의 모든 私的 親密性을 끊고 그들과의 어떤 自發的인 關係를 맺지 않도록 하는 일이 그 義務이라는 것을 나도 認定한다. 그러나 惡한 者들과의 親密한 交際를 避하는 일과 저들에 對한 憎惡로 因하여 教會의 交通을 排斥하는 일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저들과 함께 주의 찬을 나누는 것은 胃爛的이라고 생각하는 者들은 이 점에 있어서 바울보다 지나치게 嚴格한 것이다. 대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의 찬에 精潔함과 거룩함으로 참여하라 할때에 그는 각각 다른 사람을 살피고 혹은 온 教會를 살핀 後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한것이 아니요, 各己 自己를 살피라고 한것이다. 萬一 適當치 않은 者와 함께 受餐하는 것이 不當하였다면 바울은 分明히 우리 周圍에 있는 者들을 살피고 會衆 가운데 순결치 않은 者가 있어 그르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하게 되지 않을가 살

될것을 命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만 각각 自己를 살되라고 할뿐임으로 이는 舍當치 않은 齣가 우리 사이에 있다 하여도 우리에게 아무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그가 後에 追加한 말에 들어나 있다. 「누구든지 主의 떡이나 잔을 舍當치 않게 먹고 마시는 者는 自己의 罪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 21, 29) 그는 여기서 다른사람의 罪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自己의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充分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 대개 누가 教會에 容納되어야 하며 누가 教會로 부터 逐出되어야 하는가를 判斷하는 일이 각사람에게 다 마겨진 일이 아니다. 이 權勢는 全教會에 속하며 合法的 節次를 밟아서 行事하여야 한다. 이 問題에 關하여는 後에 全體的으로 取扱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他人의 舍當치 않음으로 因하여 各個人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正當하지 않다. 그런 者들이 오는 것을 막는 일이 그의 權限에 屬하지도 않고 그의 義務에도 屬하지 않을때에 그 사람과 함께 됨으로 因하여 그가 부정하게 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誘惑은 때로는 義에 對한 無思慮한 熱情으로 起因하는 일도 있으나 一般的으로 지나친 嚴格性을 참된 거룩함으로 誤認하는데 起因하며, 또는 거룩하여 지고져 하는 참된 關心에 起因하기 보다는 자고와 교만에 더욱 起因하며 사람들이 흔히 품는 自身의 卓越한 거룩함에 對한 거짓된 소견에 起因한다. 그러므로 教會로 부터의 分裂을 가장 熱心히 피하며 마치 革命的 기치를 든것처럼 行하는 者들은 一般的으로 저들 自身의 卓越性을 나타내 보이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 對한 蔑視에 그 動機가 있는것에 不過하다.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正確하고 또 正當하다. 「教會의 권징의 敬虔한 法則과 方法은 平和의 줄로 메는 聖靈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그 본뜻이 있어, 이것을 使徒는 서로 忍耐로서 保存할 것을 命하였고 또 이것이 保存되지 못할진대 권징 그 自體가 無用하게 될뿐만 아니라 오히려 有害한 것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弛緩 고치는 일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저 惡한 者들은 다른 사람들의 罪惡에 對한 憎惡에서가 아니요, 오히려 論爭을 즐겨하는 고로 分裂을 피하고 單純하고 教育없는 大衆을 誘惑하여 저들 自身의 特性을 誇張하여 誘惑하

든가 或은 적어도 分裂을 惹起시킨다. 이와같은 者들은 自慢으로 높아졌고 頑固함으로 亂暴하여져서 狡猾하게 까다로운 異說을 流布시키며, 사면 伸동하여 騷亂케 하며, 한편 저들이 眞理를 缺如하고 있음을 가리우기 爲하여 嚴嚴 嚴格性의 말을 쓰고 自身을 감춘다. 兄弟들의 過誤를 是正함에 있어서 극히 溫和하게 하여, 전지전 사랑을 깨트리는 일이나 平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聖經의 命命된 것을, 저들은 胃積的인 不和를 조장하라는 뜻으로 曲解하여 教會로 부터의 分裂의 계기를 삼는다. 이 敬虔하고 平和로운 자들에게는 어거스틴은 命하기를 是正하여야 할 일은 저들의 힘이 미치거든 慈悲로운 가운데 행하여야 할 것이며, 저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改革하시거나 이를 교정하시거나 혹은 후수에 가라지는 뽑아내고 죽정이는 까불러 내시기까지 사랑가운데 슬피하며 기다릴것을 命하고 있다. 모든 敬虔한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여 上述한 忠告들을 銘心하여 스스로 勇敢하고 熱心있는 義의 파수군된 것으로 自處하여 唯一의 義의 나라인 하늘의 王國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개 하나님의 教會의 교통이 이 外的 社會 속에서 維持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으로 惡人들을 避하여 이 社會의 장포를 깨트리는 者들은 聖徒들의 班列에서도 떨어질 심히 危險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먼저 생각하여야 할것은 큰 무리 속에는 저들이 미처 發見치 못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者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저들이 생각하여야 할것은 道德的인 파산상태에 있는것 같이 보이는 者 가운데도 비록 저들이 罪惡에 탐닉하여 있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마음에 사로 잡히며 더 큰 完全性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자리에 이른다는 것이다. 세째로 저들이 生覺할 것은 사람에게 對하여 단 한번의 行爲로서 判斷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장 거룩한 사람일 지라도 때로는 가장 가탄할만한 타락에 이른다. 네째로 저들이 알아야 할것은 말씀의 사역과 聖禮典의 參與는 教會의 統一性에 있어서 決定的인 要素가 됨으로 몇몇 敬虔치 않은 者들의 犯

(以下58p에)